

예 배	일 시	장 소
주일예배	주일 오후 1시 50분	예배당
청년 큐티 나눔	금요일 오후 9시	Zoom
한민 말씀방	매일	카카오톡

주일 예배 봉사위원

	09. 18	09. 25	10. 02
대 표 기 도	김복자 권사	강희수 성도	정용현 집사
성 경 봉 독	김복자 권사	강희수 성도	정용현 집사

환영 : 예배를 위해 교회를 방문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안내 : YouTube에서 „브레멘 한민교회“ 검색하세요.

교회소식

9월 축복인사 - 예배 드리는 성도님은 아름다우세요(성도 간에)
나는 하나님의 보물이야(자신에게)

1.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 목회자 모임 - 15일(목) 오전 10시 - 소망교회(Hamburg)
3. 나눔의 시간 - 예배 후 친교실에서 추석 식사교제를 나눕니다.
4. 교회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해 '자유게시판'을 많이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5. 청년들의 소모임 활성화, 학업과 취업, 장래 진로를 위해 집중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교우동정

생일	김효중 집사, 이동현 형제

지난주통계

주일헌금	
감사헌금	
십 일 조	
합계(Euro)	

브레멘 한민교회

Bremen Han-Min Reformierte Kirchengemeinde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교회(히10:25)”



담임목사 이 상 호(Sang Ho Rhee)

예배반주 조 영 재 형제

교회 : Anna-Stiegler-Str. 124 28277 Bremen
전차 (Tram) 4번 / 버스 (Bus) 22, 29, 51, 52번
정거장(H) : Kattenturm-Mitte

민음의 부요를 보이고
소망의 기쁨을 나누며
사랑의 배려를 나타내는 교회



<http://www.brehanmin.de>

주일 예배 Gottesdienst

- 찬 양 Gemeindelied Liebevoll 찬양팀
- 송 영 Chor 반주자
- 기 원 Altargebet 이상호 목사
- 신앙고백 Glaubensbekenntnis 사도신경(새번역) 다같이
- 찬 송 Gemeindelied 290장 다같이
- 기 도 Gebet 장래황 성도
- 성경봉독 Predigttext 창 20 : 1 - 6(구p25) 장래황 성도
(1.Mose 20:1-6)
- 교회소식 Information & Begrüßung (새 가족 환영)..... 이상호 목사
- 헌 금 Gemeindelied zur Kollekte 이상호 목사
- 설 교 Predigt 나를 일으키소서! 이상호 목사
- * 파송찬양 Abschlusslied 선한 능력으로 다같이
- * 축 도 Segnungsgebet 이상호 목사
- * 송 영 Chor 반주자

*** 표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 헌금은 예배 전 입구에서 봉헌해 주세요.

† 다음 주일 기도 담당 : 김복자 권사

† 기도제목

1. 포기하거나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기억하게 하소서
2. 한민교회와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학업과 생업에 기름 부어 주소서
3. 브레멘의 각 대학에 입학한 한국유학생들이 한민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4. 우크라이나와 세계 평화와 경제 안정을 위해
5. 김선택, 장보경(형가리)선교사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소서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다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갈라파고스 제도는 매년 관광객들로 붐빈다고 합니다. 그곳은 흥측하게 생긴 도마뱀들과 커다란 거북과 각종 물개와 새들, 그야말로 동물의 왕국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관광객들을 사로잡는 것이 모래톱에서 새끼 거북들이 깨어나 바다로 돌아가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은 동이 트는 새벽녘에만 볼 수 있습니다. 관광 가이드 안내를 따라 한 무리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모래가 꿈틀꿈틀 움직이고 새끼 거북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갈매기들이 새끼 거북들을 잡아먹기 때문에 속히 바다로 가야 했습니다. 보는 사람들이 더 긴장하고 초조했습니다. 이 때 선두로 나와야 할 새끼 거북 한 마리가 밖으로 나오지 못하고 바둥거렸습니다. 날은 점점 밝아오자 보다 못한 한 관광객이 가이드의 저지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새끼 거북을 꺼내 주었습니다. 갑자기 밖으로 나온 새끼 거북은 바다가 어느 쪽인지 헤매기 시작했고 다른 새끼 거북들도 덩달아 헤매다가 결국 갈매기의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북들은 자연의 이치에 따라 자기 힘으로 밖으로 나와 했습니다. 사람들의 도움이 오히려 수백 마리의 새끼 거북들을 죽게 만든 것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면 답답합니다. 조금만 도와주면 금방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느려 보이고 불안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가 가장 정확합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과 함께 떠나는 신앙여행 / 백금산 목사

(예수가족교회 담임)

소모임을 위한 질문

1. 애굽에서 이미 겪었던 상황이 재 반복되는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나요?
2. 이와 유사한 상황에 놓인다면 어떻게 대처할까요?